

韓國 醫書에 보이는 佛手散의 處方構成과 效能·主治에 대한 고찰

¹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部 · ²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柳延我¹ · 丁彰炫² *

Constitution of Prescription and Medicinal Effect &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佛手散)' in Korean Medical Books.

Lyu Jeong-ah¹ · Jeong Chang-hyun² *

¹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bjects : A literature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and medicinal effect &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Bullsusan" is a herbal prescription composed of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and *Cnidii Rhizoma*(川芎).

Objectives : Through the researching on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gain the literature evidence for adaptation to these days child labor as a pre-labor keeping herbal medicine. And have detailed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tion of prescription and medicinal effect &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Methods : First, researched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A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 and analysed component ratio, nickname, herbal manufacture and drug processing method, medicinal effect and adaptation diseases. Second, referred related Korean and Chinese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medicinal effect and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by scientific experimentation.

Conclusions : We found total 46 records of "Bullsusan" from 20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included at A Series of Korean Medicine. Prescription component ratio of *Angelicae Gigantis Radix* and *Cnidii Rhizoma* were 3:2, 1:1, 2:1, 1:1. 3:2 had most 20 records and 1:1 had second 14 records. Especially 1:1 had a tendency of having nickname "Goonguitang", but not must had. First herbal manufacture was powder, it had 8 records. First drug processing method was decocting with water and alcohol, had 19 records. Medical Effects of "Bullsusan" can be induced to next 8, that were "remove get bad blood, give birth new blood",

“easy labor by reducing fetal volume”, “acceleration of labor”, “test of fetal survival, elimination of dead embryo”, “elimination of placenta”, “revive”, “allaying pain”, “nourish the blood”. From these medical effects, 9 adaptation diseases can be induced. That were “threatened abortion”, “womb ache and vaginal bleeding by spontaneous abortion”, “pre-labor keeping(prevention of hard labor)”, “acceleration of labor”, “hard labor”, “missed abortion”, “postnatal vaginal bleeding, dizziness, asthma, headache, womb ache”, “postnatal mastoptosis and mastodynia”, “first aid symptom like as dizziness, unconsciousness, stroke caused by excessive bleeding”. The medical effect of “acceleration of labor” and “elimination of placenta” have been examined by modern clinical research. The effect of “remove get bad blood, give birth new blood”, “allaying pain” and “nourish the blood” have been examined by modern experimental study. But overdosing on “*Bullsusan*” to pregnant mouse can cause natural abortion, so the proper dose of “*Bullsusan*” in pregnant period is very important.

Key Words : Pre-labor Keeping Herbal Medicine(産前管理韓藥), *Bullsusan*(佛手散),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Cnidii Rhizoma*(川芎), Obstetrics(産科)

I. 序 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佛手散은 當歸와 川芎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한약처방으로 중국 唐代 孫思邈의 『孫眞人千金方』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佛手散’이라는 처방명은 宋代 許叔微의 『普濟本事方』에 처음 보인다.¹⁾ 『孫眞人千金方』에는 處方名이 없으며, 當歸와 川芎 각3냥으로 구성되어 부인의 産乳, 傷胎, 崩中, 金瘡, 拔牙齒로 인한 失血過多 證에 물에 달여서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²⁾ 『普濟本事方』에 기재된 佛手

散의 效能 및 主治는 부인이 임신 5~7개월에 胎가 손상되어 복통이 그치지 않고 下血을 할 때 불안정한 胎와 어머니를 회복시키거나 이미 사망한 태아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작용이 신묘하다고 하였다. 용량 및 전탕, 복용법은 當歸 6냥, 川芎 4냥을 거칠게 가루 내어 매 복용 시마다 2돈씩을 물 1 작은 잔으로 먼저 달이고 다시 술 1 큰 잔을 부어 한소금 끓인 후 찌꺼기를 버리고 따듯하게 복용한다. 경련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을 입으로 흘려 넣어 주기를 2~3차례 반복하면 환자가 곧 소생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각종 출혈과다증에 물로 전탕하여 사용하는 용법을 『和劑局方』을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³⁾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Received(2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 1) 柳姪我, 丁彰炫. 臨産 醫論과 醫方에 대한 문헌고찰-佛手散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178.
- 2) 唐 孫思邈 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04. “婦人産乳去血多, 傷胎去血多, 崩中去血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未止, 心

中懸虛, 悶眩, 頭重, 目暗, 耳聾, 舉頭便悶欲倒, 且宜煮當歸芎藭各三兩, 以水四升煮取二升, 去滓, 分二服即定. 轉續次第諸湯治之.”

- 3)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治婦人妊孕五七月, 因事築磕著胎, 或子死腹中 惡露下, 疼痛不止, 口噤欲絕, 用此藥探之. 若不損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立便逐下. 此藥催生神妙, 佛手散. 當歸六兩, 洗去蘆, 薄切焙乾秤, 川芎四兩洗, 右蟲末, 每服二錢, 水一小盞, 煎令泣泣欲乾, 投酒一大盞, 止一沸, 去滓溫服. 口噤灌之. 如人行五七里, 再進, 不過二三服便生. 和劑局方, 此藥治傷胎去血多, 崩中 去血多, 金瘡去血多, 拔牙

이상 처방과 처방명의 연원이 되는 두 문헌의 기재를 보면 佛手散은 임신 중 胎를 傷한 위급한 경우에 母子를 회복시키거나 사망한 태아가 체외로 배출되도록 하며, 각종 출혈과다증에 사용할 수 있는 救急處方이다. 佛手散은 『東醫寶鑑』을 비롯한 한국醫書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위의 두 경우 외에 임신과 출산 및 산후 여러 증상에 대한 다양한 主治를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 제21대 英祖大王의 모후 淑嬪 崔氏의 3회에 걸친 출산과정을 기록한 『護産廳日記』에는 難産을 예방하고 順産을 도모하는 臨産豫備藥으로 사용된 실례가 나온다. 즉 출산 진통이 시작되면 佛手散에 益母草 2~5돈을 가하여 복용함으로써 출산이 쉽고 빠르게 되도록 미리 조치하였던 것이다.⁴⁾ 『護産廳日記』는 王室出産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佛手散을 臨産豫備藥으로 사용하는 것은 1960년대, 1970년대 신문 지상의 가십란에 어떠한 상황을 出産과 佛手散의 사용에 빚대어 풍자할 정도로 상식화, 대중화 되어 있었다.⁵⁾⁶⁾ 이러한 정황을 볼 때 佛手散은 우리나라에서 왕실출산 뿐 아니라 일반인의 출산에도 출산 진통 시작 후 難産 예방과 順조로운 출산을 위한 임산예비약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醫書에 기재된 佛手散에 대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출산에 佛手散을 산전관리 한약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헌근거를 확보하고, 더불어 처방구성 및 效能·主治를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한국醫書 중 婦人門에 기재된 佛手散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分量과 異名, 修治法, 煎湯法, 效能, 主治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佛手散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 去血多, 昏暈欲倒者, 用水煎服.”
- 4) 朝鮮 護産廳 編著. 護産廳日記. 1693-1698(肅宗19-24)寫.
 - 5) 동아일보. 기사(가십). 1966.1.10. “新黨탄생 뿔뿔말똥, 해님도록 陣痛만 되풀이. 佛手散이나 써보시지.”
 - 6) 경향신문. 기사(가십). 1973.8.7. “佛手散이 듣지 않는 산모에게도 돈을 놓고 빌면 빨리 順산한다는 게 요즘 세태다.”

- 첫째, 當歸와 川芎 2가지 약제로 구성된 처방
- 둘째, 처방명이 佛手散이 아니더라도 當歸, 川芎 2가지 약제로 구성된 경우는 포함
- 셋째, 2가지 약제의 분량에는 상관하지 않고 포함
- 넷째, 가감법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다섯째, 當歸와 川芎으로 구성된 후 1가지 약제를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경우는 포함

韓國醫學大系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재직하였던 故 金信根 박사의 문헌수집 및 편찬으로 1988년 驪江出版社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총50책의 한국의 약학 총서이다. 1992년 再刊 시에는 제1책의 시작 부분에 각 책에 수록한 醫書를 명시한 總目을 첨가하였다. 한국醫書는 원문이 逸失된 경우가 많으며, 혹 원문이 존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지학적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또한 많다. 이러한 실정에서 총서형태로 원문을 보존하고 있는 韓國醫學大系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혹 영인상태가 좋지 못하여 원문을 해독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주에 인용한 원문 중 형태를 식별하기 힘든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각 醫書의 판본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은 서지학적인 고찰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佛手散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다보면 중국醫書의 내용 또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반복해서 인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醫書 내용의 단순 구비보다는 임상에서의 실제 활용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왔던 한국醫書의 특성 상 인용 자체에도 編著者の 선택과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3. 佛手散에 대한 연구동향

천미란의 「佛手散이 妊娠 및 子宮筋에 미치는 영향」⁷⁾, 김춘애의 「芎歸湯 및 佛手散煎液이 貧血家兔의 造血效果에 미치는 影響」⁸⁾, 유심근의 「佛手散이

- 7) 천미란. 佛手散이 妊娠 및 子宮筋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8) 김춘애. 芎歸湯 및 佛手散煎液이 貧血家兔의 造血效果에

백서 자궁경수축력 및 자발운동에 미치는 영향⁹⁾ 등은 국내에서 佛手散의 자궁에 대한 작용 및 빈혈에 대한 效能을 탐구한 연구이다. 중국에서는 佛手散의 전통적 效能에 대한 고찰 및 그에 대한 현대 실험적 검증 연구가 보다 활발하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白鶴의 「佛手散의傳統功用與現代研究關聯分析」¹⁰⁾, 黃美艷의 「佛手散不同醇提液補血作用比較研究」¹¹⁾, 黃美艷의 「採用代謝組學策略研究佛手散對急性血瘀大鼠的活血化癥作用機制」¹²⁾, 魯建武의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¹³⁾, 陳春玲의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妊娠引產效果分析」¹⁴⁾, 陳芊의 「佛手散對先兆流產模型大鼠 TNT- α 影響的實驗研究」¹⁵⁾ 등은 현대적 연구방법으로 佛手散의 效能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지표를 설정하여 佛手散의 여러 效能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였다. 본고의 「考察」부분에서 한국 醫書 내용 고찰을 통해 귀결한 佛手散의 效能 및主治에 대해 이를 현대적 연구로 검증한 국내 및 중국 연구의 내용을 병행하여 소개할 것이다.

II. 本 論

1. 韓國醫學大系 중 佛手散 관련 기록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한국 醫書 중 총 20종의 醫書에서 46건의 佛手散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9) 유심근. 佛手散이 백서 자궁경수축력 및 자발운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0) 白鶴 外 3人. 佛手散의傳統功用與現代研究關聯分析. 中成藥. 2014. 36(3). pp.601-604.
- 11) 黃美艷 外 7人. 佛手散不同醇提液補血作用比較研究. 中國臨床藥理學與治療學. 2011. 16(8). pp.841-846.
- 12) 黃美艷 外 6人. 採用代謝組學策略研究佛手散對急性血瘀大鼠的活血化癥作用機制. 中國中藥雜誌. 2013. 38(20). pp.3576-3582.
- 13) 魯建武, 宋金春, 曾俊芬.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 中國醫院藥學雜誌. 2009. 29(5). pp.356-358.
- 14) 陳春玲, 陳錦玉.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妊娠引產效果分析. 實用中醫藥雜誌. 2014. 30(6). pp.511-512.
- 15) 陳芊 外 4人. 佛手散對先兆流產模型大鼠 TNT- α 影響的實驗研究.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9. 14(9). pp.618-620.

Table 1.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 관련 기록)

大系 卷次	醫書名	醫書 내 分類目	기록 건수
1권	鄉藥救急方	婦人雜方	1
1권	診解救急方	難產	1
6권	鄉藥集成方	妊娠疾病門, 坐月門, 催生, 產後頭痛, 乳癰	6
10권	醫林撮要	產後門	1
14권	東醫寶鑑	胎漏胎動, 瘦胎令易產, 下死胎, 妊娠通治	4
16권	廣濟秘笈	婦人門	3
18권	濟衆新編	保產, 妊娠通治	2
21권	醫鑑刪定要訣	婦人	1
24권	本草附方便覽	婦人	1
26권	醫宗損益	保產	1
27권	春監錄	婦人門	3
28권	袖珍經驗神方	產後諸症	1
29권	醫方新鑑	胎漏胎動, 產脈, 橫產, 妊娠	5
30권	醫本	保產, 妊娠通治	2
31권	經驗方	辨胎法	1
33권	胎產要錄	催產	1
33권	診解胎產集要	通治, 十產候, 察色驗胎生死, 下死胎, 血暈, 喘息	6
33권	壽生新鑑 產房隨錄	孕婦預服難產, 胎動血漏腹痛犯房感寒	2
44권	增補山林經濟 救急篇	胎漏胎動子懸, 難產	3
46권	仁濟志	湯液	1

2. 佛手散의 處方構成

1) 구성약물

婦人門 중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은 처방명이 佛手散이 아닌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鄉藥救急方』¹⁶⁾, 『鄉藥集成方』¹⁷⁾에

16)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六兩 芎藭 四兩.”

는 川芎을 ‘芎藭’으로 표기하였으며, 『鄉藥集成方』에 『胎產救急方』을 인용하여 수록한 처방에는 當歸는 當歸鬚로 사용 부위를 세분하여 기재하고 川芎은 芎藭으로 표기하였다.¹⁸⁾ 나머지는 모두 구성 약물을 當歸와 川芎으로 기재하였다.

2) 구성비율

當歸와 川芎의 처방 구성 분량은 다양하며, 특히 當歸와 川芎의 분량을 동일하게 한 경우 처방명을 ‘芎藭湯’으로 한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當歸와 川芎의 처방 구성 비율에 따른 처방의 구분은 상정하지 않고 다만 구성 비율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보았다. 먼저 當歸 6돈(兩)과 川芎 4돈(兩)으로 구성된 경우는 『鄉藥救急方』¹⁹⁾과 『東醫寶鑑』²⁰⁾ 등에 보이며 총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꼭 6돈, 4돈이 아니더라도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가 3:2인 경우는 모두 여기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當歸 2兩과 川芎 1兩으로 구성된 경우는 『本草附方便覽』에 1건이 있었다.²¹⁾ 當歸와 川芎의 분량이 동일한 경우는 『診解救急方』²²⁾ 등에 총 14건으로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이 3:2인 경우의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當歸 3兩, 川芎 6兩으로 川芎이 當歸의 2배로 구성된 경우가 『鄉藥集成方』에 1건 있었다.²³⁾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에 따라 效能 및 主治가

다르게 서술된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Table 2. The component ratio between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and *Cnidii Rhizoma*(川芎)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當歸와 川芎 구성 비율에 따른 분류)

當歸 : 川芎 구성 비율	대표 醫書	기재 건수
3:2	鄉藥救急方, 東醫寶鑑	20
2:1	本草附方便覽	1
1:1	診解救急方	14
1:2	鄉藥集成方	1

3) 修治

當歸와 川芎의 修治法으로는 두 가지 약재를 거칠게 혹은 곱게 가루로 만든 粉末을 사용한 경우가 『鄉藥集成方』²⁴⁾ 등에 8건 기재되었다. 『廣濟秘笈』²⁵⁾에는 當歸 酒洗, 川芎 炒去油로 修治法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으며, 『醫方新鑑』²⁶⁾에는 川芎에 대하여 去油로 修治法을 명시하였다. 이외 다른 修治法은 보이지 않았다.

17)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歸 等分.” p.231. “當歸 三兩 芎藭 六兩.” p.349. “芎藭 2兩, 當歸 3兩.”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p.607. “當歸 芎藭 各二斤.”
 18)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當歸鬚, 芎藭 各四錢.”
 19)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六兩 芎藭 四兩.”
 20) 許浚 編著.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當歸 六錢 川芎 四錢.”
 21) 黃度淵 撰. 金信根 編. 本草附方便覽. 韓國醫學大系2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85. “當歸 二兩 川芎 一兩.”
 22) 許浚 改撰診解. 金信根 編.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31. “取當歸川芎各五錢.”
 23)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1. “當歸 三兩 芎藭 六兩.”

24)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歸 等分 右曬塵末, 每服三錢, 水煎溫服, 前食.” p.349. “芎藭 2兩, 當歸 3兩, 右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 酒二分, 煎七分, 溫服. 一方粗末, 每服四錢, 水七分, 酒三分, 同煎七分, 去滓熱服.” p.432. “當歸鬚, 芎藭 各四錢,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連進二服.”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每服二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服.” p.607.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斤, 剉散, 於()石器內用水濃煎, 不拘時候, 多少溫服.”
 25)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當歸 酒洗 一兩, 川芎 炒去油 七錢.”
 26) 韓秉堯 撰. 金信根 編.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29. 서울. 驪江出版社. 1988. “當歸 六錢, 川芎 去油四錢.”

Table 3. Herbal manufacture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修治法)

當歸, 川芎의 修治法	대표 醫書	기재 건수
粉末	鄉藥集成方	8
當歸 酒洗, 川芎 炒去油	廣濟秘笈	1
川芎 去油	醫方新鑑	1

4) 煎湯 및 外治製藥法

佛手散의 煎湯에는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鄉藥救急方』²⁷⁾, 『診解救急方』²⁸⁾ 등에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만으로 전탕한 경우는 『鄉藥集成方』²⁹⁾ 등에 13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해서 전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물과 술을 함께 넣어 달인 경우, 술에 먼저 달이고 나중에 물을 넣어 더 달인 경우, 먼저 물에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넣어 더 달인 경우, 물과 술로 달이는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물과 술을 함께 써서 달인다고만 한 경우의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먼저 물에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넣어 더 달이는 경우가 『鄉藥救急方』³⁰⁾ 등에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술로 먼저 달이다가 나중에 물을 넣고 더 달인 경우

는 『診解救急方』³¹⁾과 『增補山林經濟 救急篇』³²⁾에 각 1건씩 2건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해서 달이는 경우에, 기재 건수로 보았을 때, 먼저 물로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더 넣고 달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鄉藥集成方』과 『袖珍經驗新方』에는 産後乳懸症에 대한 佛手散의 內服과 外治 並行療法을 기재하고 있다. 『鄉藥集成方』³³⁾에는 특히 『得效方』을 인용하여 産後 乳懸症의 증상과 佛手散의 內服法, 外治 製藥法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袖珍經驗新方』³⁴⁾에는 『鄉藥集成方』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보다 간략히 기재하였다. 內服은 當歸와 川芎 동일 분량을 가루내거나 썰어서 물에 달인 후 수시로 복용한다. 外治法으로 사용할 當歸와 川芎은 역시 동일 분량으로 하되, 잘게 자르지 않은 큰 덩이를 화로의 둥근하게 타는 불 위에 두어 태움으로써 연기가 나게 한다. 병자의 얼굴 앞에 탁자를 두고 화로를 그 아래에 두어서 연기가 곧장 위로 오르게 하고, 병자의 입과 코 그리고 병든 유방에 當歸와 川芎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쫓게 한다. 乳懸症에 대한 當歸

27)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六兩 芎藭 四兩 右叢末每用三錢. 以水一小盞. 煎令溫乾. ()熱酒一大盞止一沸. 去滓溫服.”
28) 許浚 改撰診解. 金信根 編.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531-532. “取當歸川芎各五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至半. 溫服連三次. 便產妙.”
29)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歸 等分 右曬麗末. 每服三錢. 水煎溫服. 前食.” p.432. “當歸 鬚. 芎藭 各四錢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連進二服.”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每服二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服.”
30)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六兩 芎藭 四兩 右叢末每用三錢. 以水一小盞. 煎令溫乾. ()熱酒一大盞止一沸. 去滓溫服.”

31) 許浚 改撰診解. 金信根 編.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531-532. “取當歸川芎各五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至半. 溫服連三次. 便產妙.”
32) 柳重臨 編. 金信根 編. 增補山林經濟 救急篇. 韓國醫學大系4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0. “當歸川芎. 各五錢. 益母草三錢. 酒一盞. 入藥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至半. 溫服連三次.”
33)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救急易解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607-608. “『得效方』治婦人産後忽兩乳伸長. 細小如鴨. 垂下直過小肚. 痛不可忍. 危亡須臾(), 名乳懸.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斤. 剉散. 於()石器內用水濃煎. 不拘時候. 多少溫服. 餘一斤半. 剉作大塊. 用香爐慢火. 旋燒烟出. 安在病人面前卓子下. 令烟氣直上. 不絕使病人低頭伏卓子上. 將口鼻及病乳常吸烟氣. 用此一料盡者. 病證如何. 或未全安略縮減. 再用一料如前法. 必安如用此二料已盡. 兩乳雖若縮上而不復舊. 用冷水磨草麻子一粒. 於頭頂心上塗. ()時即洗去. 則全安矣.”
34)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新方. 韓國醫學大系2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産後兩乳伸長. 細小如鴨. 垂過小腹. 痛不可忍. 川芎. 當歸 各四兩. 砂器煎水時時服之. 別用川芎 當歸 各一斤. 切大塊於爐上. 慢火燒烟. 安病人面前. 使烟氣不絕. 令伏卓上. 將口鼻及兩乳常吹入烟氣. 如藥盡未全. 如前法煎服. 燒薰亦然. 兩乳雖縮上而不復舊. 用冷水磨卑麻子一立. 塗頭頂心. 俟乳縮. 即洗去.”

와 川芎의 외치법은 곧 병자의 환부와 口鼻에 대한 혼연법으로, 병리적으로 이완된 筋 또는 肌肉에 대한 현대적인 外治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Table 4. Drug processing method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煎湯 및 外治製藥法)

佛手散의 煎湯 및 外治製藥法	대표 醫書	기재 건수
酒水并煎	鄉藥救急方	19
水煎	鄉藥集成方	13
燒 煙氣 燻蒸	鄉藥集成方	2

5) 當歸, 川芎 외에 가하면 좋다고 한 약제

본고의 고찰 대상에 加減法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當歸와 川芎을 기본 구성 약물로 하고 1가지 약물을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경우는 포함하였다. 益母草 3돈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東醫寶鑑』³⁵⁾ 등에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東醫寶鑑』에 益母草를 가하면 좋다고 한 문장은 『萬病回春』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荊芥穗炒末 2돈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診解胎產集要』³⁶⁾에 1건 있었고, 肉桂 1兩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壽生新鑑·產房隨錄』³⁷⁾에 1건 있었다.

荊芥穗炒末을 가한 경우는 산후어지림증[產後血量]을 치료하기 위함³⁸⁾이었으며, 肉桂를 가한 경우

는 대반이 배출되지 않는 難産을 치료하기 위함³⁹⁾이었다. 益母草를 가한 경우는 출산 달에 복용함으로써 태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기 위함[縮胎易産]⁴⁰⁾과 橫産·逆産 및 難産으로 위급한 증을 다스리기 위함⁴¹⁾, 그리고 산후에 처음 식사하기 전 뒤달을 없애기 위함⁴²⁾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3가지 경우 각각의 기재건수는 출산 달에 복용함으로써 태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기 위함[縮胎易産]이 8건, 橫産·逆産 및 難産으로 위급한 증을 다스리기 위함이 5건, 산후에 처음 식사하기 전 뒤달을 없애기 위함이 1건이었다. 이 중 縮胎易産과 難産으로 위급한 증을 함께 언급한 경우⁴³⁾가 1건 있었다.

Table 5. Good adding medical herb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에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약제)

佛手散에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약제	대표 醫書	기재 건수
益母草	東醫寶鑑	13
荊芥穗炒末	診解胎產集要	1
肉桂	壽生新鑑·產房隨錄	1

35)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貼, 水煎臨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又妙. 回春.”
 36) 許浚 撰. 金信根 編. 診解胎產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51. “芎歸湯, 治血量, 用此煎水, 入荊芥穗炒末二錢調服, 即效.”
 37)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產房隨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入肉桂一兩, 煎服則即效.”
 38) 許浚 撰. 金信根 編. 診解胎產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51. “자식나산후에어즐한증이라. 芎歸湯, 治血量, 用此煎水, 入荊芥穗炒末二錢調服, 即效. 方見通治.”

39)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產房隨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難産, 及布衣不下, 用佛手散.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入肉桂一兩, 煎服則即效.”
 40)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佛手散,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産, 自無難産之患.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貼, 水煎臨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又妙. 回春.”
 41) 許浚 改撰診解. 金信根 編.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31. “橫逆産, 及子死腹中, 難産危急, 取當歸川芎各五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至半, 溫服連三次, 便産妙.”
 42)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產房隨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71. “産後初飯前, 用芎歸湯, 川芎 當歸 各五錢, 加益母草三錢. 預煎熟置, 服一貼, 則無後煩.”
 43) 李永春 撰. 金信根 編. 春鑑錄.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93. “佛手散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入酒少許再煎溫服, 加益母草三錢尤妙. 此若孕婦臨月服, 則縮胎易産, 自無難産之患. 又胎傷心腹痛, 口噤欲絶, 服之痛止, 子母俱安, 若胎死, 則立便逐下. 若知胎死, 丁寧宜.”

6) 異名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의 方名은 “佛手散” 외에 다양한 異名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異名이 “佛手散”과 나란히 병기되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異名은 “芎歸湯”으로 『醫林撮要』⁴⁴⁾ 등에 모두 18건이 있었다. 芎歸湯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히 當歸와 川芎 분량이 동일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8건의 芎歸湯 표기 중 『東醫寶鑑』⁴⁵⁾ 등의 9건에서 當歸와 川芎이 같은 분량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佛手散과 芎歸湯을 동일 처방으로 표기한 것이 『胎產要錄』⁴⁶⁾ 등에 5건, 芎歸湯의 분량을 當歸 6돈, 川芎 4돈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도 『醫鑑刪定要訣』⁴⁷⁾ 등에 2건이 있다. 특히 『診解胎產集要』⁴⁸⁾에는 芎歸湯이 곧 佛手散이며 當歸 6돈, 川芎 4돈으로 구성됨을 제시하고, 이어서 當歸와 川芎을 等分으로 해도 가함을 부기하였다. 그러므로 當歸와 川芎 等分 처방을 芎歸湯으로 일컫는 경향성은 인정하되, 佛手散과 芎歸湯을 當歸와 川芎 구성비에 따라 구분되는 별개의 처방으로 규정하긴 어렵다.

芎歸湯 외에 다른 異名으로는, “立效散”이 『醫方新鑑』⁴⁹⁾ 등에 3건, “烏金散”이 『醫林撮要』⁵⁰⁾에 1건, “神妙佛手散”이 『本草附方便覽』⁵¹⁾에 1건, “的奇

散”이 『鄉藥集成方』⁵²⁾에 1건 있었다. 이 중 특히 神妙佛手散의 경우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가 2:1인데, 서술된 效能主治에 임신예비의 縮胎易産이나 산후조리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복중 태아사망으로 인한 급증만 보인다. 『本草附方便覽』의 撰者가 黃度淵임을 고려하여 추측해보건대, 撰者인 黃度淵이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를 조절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즉 유산으로 인한 급증으로 쓸 경우 黃度淵은 當歸와 川芎의 비율을 2:1로 하는 것이 3:2 또는 1:1로 하는 것보다 용이하였던 임상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佛手散의 기존 비율을 약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立效散’의 경우 『醫方新監』에 當歸 6돈, 川芎去油 4돈, 『鄉藥集成方』에 等分, 『東醫寶鑑』에 當歸 6돈, 川芎 4돈으로 方名과 當歸, 川芎의 구성비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的奇散은 『鄉藥集成方』에 當歸, 川芎 等分으로 되어 있고, 烏金散은 『醫林撮要』에 분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佛手散과 함께 芎歸湯의 異名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立效散, 烏金散, 神妙佛手散, 的奇散 중 神妙佛手散의 경우에만 단순한 佛手散의 異名에서 더 나아가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를 2:1로 한 佛手散의 더욱 정직한 적용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Table 6. Nickname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異名)

佛手散의 異名	대표 醫書	기재 건수
芎歸湯	醫林撮要	18
立效散	鄉藥集成方	3
烏金散	醫林撮要	1
神妙佛手散	本草附方便覽	1
的奇散	鄉藥集成方	1

44)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芎歸湯, 一名 佛手散, 一名 烏金散.”
45)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一名芎歸湯, 卽芎歸等分也. 入門.”
46) 盧重禮 撰. 金信根 編. 胎產要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4. “芎歸湯, 卽佛手散. 方見產書.”
47) 李以斗 撰. 金信根 編. 醫鑑刪定要訣. 韓國醫學大系2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0. “芎歸湯, 治産後下血多而暈者, 昏悶煩亂. 當歸 六錢 川芎 四錢.”
48) 許浚 撰. 金信根 編. 診解胎產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78. “芎歸湯, 一名佛手散. 通治産前産後, 及橫生逆産, 血量血崩, 死胎不下. 臨月服, 則縮胎易産, 産後服, 則惡血自下. 川芎 四錢, 當歸 六錢, 作貼煎服, 或等分煎服亦可. 婦人大全.”
49) 韓秉燧 撰. 金信根 編.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29.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63. “佛手散, 一名立效散. 治胎動腹痛. 方在下. 當歸 六錢, 川芎 去油四錢, 水煎服.”
50)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 “芎歸湯 一名 佛手散, 一名 烏金散.”
51) 黃度淵 撰. 金信根 編. 本草附方便覽. 韓國醫學大系2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85. “神妙佛手散, 治婦人妊娠傷胎, 或子死腹中, 血下疼痛, 口噤欲死, 以此探之, 不損則痛

止, 已損便立下, 此乃徐()王神驗方也.”
52)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46. “婦人大全良方, 的奇散. 治産後頭疼. 當歸 芎歸 右等分細末, 每服二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服.”

3. 佛手散의 效能과 主治

1) 佛手散의 效能

本考에서는 한국 醫書에 보이는 佛手散의 婦人門에서의 效能을 기존 方劑書나 處方書에 설명된 것보다 더욱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임상활용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 逐敗血, 生新血

첫째, 다른 모든 效能의 기반이 되는 效能으로 “逐敗血, 生新血”을 들 수 있다. 『鄉藥集成方·坐月門』에 “佛手散은 산전산후의 복통과 몸에서 열이 나는 것, 머리 아픈 것 및 모든 질환을 다스린다. 출산이 잇달아 아이가 태와 분리됨이 진행되지 않음에, 앞서 이 약을 복용하면 능히 모든 질환을 없애니 굳은 피는 내보내고 새로운 피를 생성한다.”라고 하여 佛手散 여러 主治의 效能을 “逐敗血, 生新血”로 귀결하였다.

佛手散, 治產前產後, 腹痛體熱, 頭疼及諸疾. 續產, 子未進別物, 卽先服此藥, 能除諸疾, 逐敗血, 生新血.⁵³⁾

위 내용을 佛手散 처방의 연원이 되는 『孫真人千金方』, 『普濟本事方』, 『太平惠民和劑局方』의 해당 설명 내용과 대조하면, “逐敗血, 生新血”로 명확하게 效能을 제시한 것은 『鄉藥集成方·坐月門』의 독창적인 서술로 보인다. 「妊娠疾病門」, 「催生」, 「產後頭痛」, 「乳癰」 등에서 모두 『救粹方』, 『產寶方』, 『胎產救急方』, 『婦人大全良方』, 『得效方』 등의 출전을 일일이 기재한 데 반해 「坐月門」에는 출전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坐月門」의 佛手散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鄉藥集成方』 이전과 이후의 어떠한 한국 醫書에서도 “逐敗血, 生新血”이라는 용어로 佛手散의 效能을 설명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逐敗血, 生新血”로 佛手散의 效能을 귀결한 것은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 각각의 效能에 상당히

착안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가지 약재 모두 부인과에 상용하는 血藥으로서 當歸는 補血작용에 川芎은 破瘀작용에 보다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약물을 배오하면 破瘀작용과 補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부인의 血과 관련된 월경, 임신, 양태, 태동불안 및 유산, 해산, 산후 惡露배출의 상황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生新血” 즉 補血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려면 當歸의 비율을 더 많게 하고, “逐敗血” 즉 破瘀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려면 川芎의 비율을 더 많게 함으로써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두 약재의 구성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佛手散을 임상에 실제로 적용한 우리나라의 醫家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3:2, 2:1, 1:1, 1:2 의 상이한 처방 구성비를 가진 佛手散을 醫書에 수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當歸, 川芎 각각의 약성을 佛手散의 效能 및 처방구성비와 연결하여 자세히 설명해놓진 않았지만, 醫家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當歸, 川芎의 개별效能과 “逐敗血, 生新血”이라는 佛手散의 效能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연역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 縮胎易產

둘째, 출산을 앞두고 미리 복용함으로써 태를 줄어든게 하여 출산을 쉽도록 하는 “縮胎易產”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 瘦胎令易產 條에 “佛手散은 임신한 부인이 해산달에 복용하면 태를 줄어든게 하여 쉽게 출산하고 자연히 難產의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하고, 이어서 『萬病回春』과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當歸, 川芎의 분량을 각각 6돈, 4돈 및 等分으로 기재하고 있다.

佛手散,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產, 自無難產之患.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貼, 水煎臨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又妙. 回春. 一名芎歸湯, 卽芎歸等分也. 入門.⁵⁴⁾

53)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49.

54)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東醫寶鑑』보다 이른 시기의 醫書인 『鄉藥救急方』, 『救急易解方』, 『診解救急方』, 『鄉藥集成方』, 『醫林撮要』에는 佛手散의 “縮胎易產” 效能이 보이지 않으며, 『東醫寶鑑』에 인용서로 제시한 『萬病回春』⁵⁵⁾과 『醫學入門』⁵⁶⁾에 기재된 설명 중에도 역시 “縮胎易產” 效能은 보이지 않는다. 『儒門事親』⁵⁷⁾과 『丹溪心法』⁵⁸⁾에 해산달에 각각 長流水에 탄 益元散과 야생 天麻를 줄여 만든 膏를 끓인 물로 복용하는 것으로 쉽게 해산하고 產後 일체 증상을 없게 한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佛手散을 사용한 “縮胎易產”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佛手散에 대하여 해산달에 미리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쉽게 하고 難産을 예방할 수 있는 “縮胎易產” 效能을 처음으로 제시한 醫書가 『東醫寶鑑』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한편 『濟生方』⁵⁹⁾에는 “해산달에 들어 訶子, 白朮,

陳皮, 高良薑, 木香, 白芍藥, 甘草로 구성된 安胎和氣散을 써서 胎를 여위게 함으로써 쉽게 출산케 한다[瘦胎易產]”는 臨産醫論이 보인다. 해산달에 들어서 미리 복용한다는 점과 태를 작아지게 한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血藥이 아닌 行氣補氣藥을 주로 사용한 점과 ‘縮胎’가 아닌 ‘瘦胎’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東醫寶鑑』에 제시한 佛手散의 縮胎易產 效能은 『濟生方』에서 연원한 “해산달에 태를 여위게 하는 약을 미리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쉽게 하는[瘦胎易產]” 臨産醫論을 계승하여 氣藥을 血藥으로 바꾸고, ‘태를 여위게’를 ‘태를 줄여들게’로 고친 창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창의적인 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임상에서의 활용과 성과의 획득이라는 현실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東醫’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다. 催産

셋째, 출산 시에 진통이 도래한 후에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催産” 效能이 있다. 『鄉藥集成方·催生』에 “『胎産救急方』의 佛手散이니, 출산 시에 장차 漿水가 과열되어 血이 내려옴에 이른 증을 다스린다. 복부에 규칙적이고 잦은 진통이 발생하여 점차 요통이 극심한 데에 이르면 태아의 몸이 이미 회전하며 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항문이 빠져 나온다. 이것은 正産의 징후이니 마땅히 이 약을 복용하여 출산을 촉진한다.”라고 하여 정상적인 출산 진통에 佛手散을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용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胎産救急方. 佛手散. 治産時將至漿破血下, 腹中作陣數疼痛, 漸至腰痛極甚, 兒身已轉, 眼如出火, 穀道挺迸, 此是正産之候. 宜

- 55) 龔廷賢 撰. 陳柱杓 編譯. 對譯 萬病回春.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809. “佛手散, 治妊娠五七個月, 因事築碻着胎, 或子死腹中, 惡露下, 痛不已, 口噤欲絕, 用此藥探之, 若不損,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 即便逐下. 當歸 六錢, 川芎 四錢, 益母草 五錢, 右銼一劑, 水煎, 入酒一盞, 再煎一沸, 溫服. 如人約行五里, 再進一服.” “芎歸湯, 治胎漏下血不止, 或心腹脹, 一服立效. 當歸尾 川芎 各五錢, 右銼一劑, 酒煎, 入童便一盞, 同煎服.”
- 5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504. “活血安胎未破漿, 如腹痛漿水未破, 止宜用古芎歸湯, 以活其血, 或漿水已破而少痛, 雖痛而不密, 宜安胎飲或達生散, 以固胎元.” “破漿已久猶難下, 破水多則血乾澁, 必用古黑神散, 血虛者, 古芎歸湯下, 名芎歸黑神散.” p.1962. “古芎歸湯. 川芎當歸各二錢, 水煎, 入酒溫服. 治胎前產後, 腹痛體熱, 頭疼諸疾, 及男子一切去血尤宜. 如孕婦因事築碻着胎, 或子死腹中, 惡露將下, 疼痛不已, 口噤欲絕者, 用酒煎乾, 再入水煎一二沸, 灌以探之, 若不損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 立便逐下. 如難產倒橫, 子死腹中, 先用黑豆炒熟, 入白童便各一盞, 藥四錢煎服. 如胎產五七日不下垂死, 及矮石女子交骨不開者, 加龜板, 并生育過婦人頭髮燒灰, 爲末, 每三錢, 酒調服.”
- 57) 金 張從政 撰.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儒門事親.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513-514. “夫婦人懷身入難月, 可用長流水調益元散, 日三服. 欲其易產也, 產後自無一切虛熱, 血氣不和之疾, 如未入月則不宜服也, 以滑石滑胎故也.”
- 58) 元 朱震亨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丹溪心法.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84. “難産, 氣血虛故也. 此蓋九月十月之際, 不謹守者有之. 亦有氣血凝滯而不能轉運者. 臨月時, 用野天麻熬膏, 白湯調下, 油蜜小便和極勻. 治難産.”

- 59) 宋 嚴用和 撰. 大星文化社 影印.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11. “論曰懷妊十月, 形體成就, 入月合進度胎易産之藥. 今世多用枳殼散, 非爲不是, 若胎氣肥實, 可以服之. 況枳殼, 大腹皮能瘦胎, 胎氣本怯, 豈宜又瘦之也. 不若進救生散, 安胎益氣, 令子緊小無病易産, 多少穩當. 安胎和氣散. 訶子麩麥煨去核, 白朮各一兩, 陳皮去白, 高良薑剉炒, 木香不見火, 白芍藥陳皮炒, 甘草炙, 各半兩, 右吹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至七分, 去滓溫服, 不拘時候, 忌生冷物.”

服此以催之.⁶⁰⁾

이 “催産”의 效能은 앞에서 기술한 “縮胎易産” 效能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縮胎易産은 해산에 앞서 1달 정도 미리 복용하지만 催産은 즉 효를 볼 목적으로 출산 당시에 복용한다. 두 가지 모두 難産을 방지할 목적이지만, 縮胎易産은 예방의 의미가 강하고 催産은 출산에 직접 개입하는 의미가 강하다. 催産은 특히, 집진적이며 특정 의학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약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效能이라 할 수 있다. 즉 즉각적이며 출산이라는 급박한 의학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는 效能이다. 『胎産要錄』⁶¹⁾에도 佛手散의 이와 같은 催産 效能을 기재하고 있다. 佛手散이 이러한 특성의 效能을 가지는 것은 물론 佛手散이 본래 失血過多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용하던 구급처방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逐敗血, 生新血”에 더하여 출산을 앞둔 자궁 평활근에 대한 작용 또는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하는 너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시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이 있어야 “催産”이 이루어질 수 있다. 『鄉藥集成方』을 비롯한 한국 醫書에 佛手散의 催産 效能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했을 것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佛手散이 출산을 앞둔 자궁 평활근 또는 너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시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작용을 미치지 않는다면 “催産”이라는 效能은 성립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라. 驗胎, 下死胎

넷째, 임신 중 태동불안 또는 유산 시에 태아의 사망여부를 시험하여 알 수 있는 “驗胎”의 效能과 만약 태아가 사망한 경우 죽은 태아를 출산하게 하

는 “下死胎”의 效能이 있다. 『鄉藥救急方·婦人雜方』에 “부인이 임신 5개월, 7개월에 房事 등으로 胎가 개착되거나 혹 태아가 복중에서 사망하여 은닉하였는데 잘못 下法을 써서 동통이 그치지 않고 입을 악물고 죽을 것 같은 데에 이 약을 써서 탐색한다. 만약 (태아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통증이 그치고 태아와 어머니가 함께 살아난다. 만약 태아가 손상되었으면 곧 내려온다.”라고 하여 유산 시 태아의 존망 여부를 시험하고, 복중 사망한 태아를 배출시키는 佛手散의 效能을 기술하였다.

理婦人五七月房事等磕着胎, 或子死腹中匿, 虛下疼痛不已, 口噤欲絕, 用此藥探之, 若不煩, 則痛止, 子母具安. 若胎損則便下.⁶²⁾

각종 진단기기가 구비되고 외과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佛手散의 이러한 效能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복중 태아의 사망여부를 정확히 알아서 죽은 태아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대하고도 급박한 일이었다. 佛手散은 바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투입되어 한 번에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效能이 있다. 즉 태아사망 여부 진단, 사망한 태아의 배출, 태동불안의 회복과 임신유지의 역할을 각각의 경우에 알맞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佛手散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보이는 醫書들인 『千金方』⁶³⁾, 『經效產寶』⁶⁴⁾, 『普濟本事方』⁶⁵⁾ 등에는 바로 이러한 效能을

60)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61) 盧重禮 撰, 金信根 編, 胎産要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4. “妊娠, 臨()漿破, 血下, 正産之候悉具. 兒却未生, 或經數日産母困(), 徧服符藥, 兒亦不下, 但恐時日未正, 所以難生者, 是當以芎歸湯驗之. 如胎平穩不須倉(), 但隨證用藥治之. 芎歸湯, 卽佛手散. 方見産書.”

62)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63) 唐 孫思邈 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04. “婦人産乳去血多, 傷胎去血多, 崩中去血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未止, 心中懸虛, 悶眩, 頭重, 目暗, 耳聾, 舉頭使悶欲倒, 且宜煮當歸芎歸各三兩, 以水四升煮取二升, 去滓, 分二服卽定. 轉續次第諸湯治之.”

64) 唐 咎股 著, 牛兵占 主編, 經效產寶. 中醫婦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9. “療難産, 疑胎在腹已死. 當歸 四分, 芎歸 六分. 右水六升, 煎取二升, 分作兩服便安, 胎死卽出, 酒煎亦得, 神驗.”

65)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治婦人妊孕五七月, 因事築磕著胎, 或子死腹中 惡露下, 疼痛不止, 口噤欲絕, 用此藥探之. 若不損

중심으로 佛手散의 약효를 기술하였다. “驗胎”와 “下死胎”는 그러므로 佛手散 창방의 주요 목적이자 역사적으로 점차 확장된 佛手散 效能의 효시가 되는 효능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의 손[佛手]”이라고 해서 외과적 처지를 연상시키는 方名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效能에서 기인한 것이다.⁶⁶⁾ 그러나 아쉬운 점은 佛手散이 어떠한 작용기전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驗胎” 및 “下死胎”와 같은 증차대한 약효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신 및 출산 기전에 대한 한의학적 인식을 고찰한 「한의학 出生生理의 奇經八脈論 적용에 대한 고찰」⁶⁷⁾ 및 「臨產 離經脈에 대한 문헌적 연구」⁶⁸⁾를 참조하여 보기 바란다.

마. 下胞衣

다섯째, 출산 후 태반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을 때 태반이 배출되도록 하는 “下胞衣” 效能이 있다. 『壽生新監·產房隨錄·孕婦豫服難產』에 “難產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데에 佛手散을 쓴다.”라고 하였으며, 英祖대왕의 어머니인 淑嬪 崔氏의 출산을 기록한 『護產廳日記』에도 첫 번째 출산에서 태반이 내려오지 않자 芎歸湯에 紅花, 桃仁, 冬葵子, 榆白皮, 滑石 등을 가하여 복용함으로써 즉효를 거두었다는 치험례가 있다.⁶⁹⁾ 『醫林撮要』⁷⁰⁾에도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해산이 어렵거나, 胞衣가 내려오지

않거나”라고 하여 佛手散을 태반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데에 적용함을 기술하였다.

難產, 及布衣不下, 用佛手散.⁷¹⁾

『壽生新監·產房隨錄』의 원문에는 ‘胞衣’가 ‘布衣’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음의 글자를 통용한 것으로 보인다. “下胞衣”의 效能은 “催產” 또는 “下死胎” 效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궁에서 만출되는 대상이 태반, 신생아, 사망한 태아로 다르고 그에 따라 佛手散의 效能도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바. 甦生

여섯째, 출혈이 과다하여 어지러우며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의식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甦生”의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에 출전을 『世醫得效方』으로 하여 “유산으로 혈을 많이 잃었거나, 산후에 혈을 많이 잃었거나, 혈붕으로 혈을 많이 잃었거나, 쇠에 찢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치아를 뽑고 혈을 많이 잃었거나 일체의 출혈이 과다하여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돌며 (가슴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수차례 연달아 복용하면 곧 소생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각종 출혈이 과하여 초래한 人事不明의 證을 甦生시키는 效能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又治半產去血多, 產後去血多, 崩中去血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 及一切去血過多, 眩暈悶絕, 不省人事者, 連進數服, 卽甦. 得效.⁷²⁾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탕약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기가 어려운데, 『東醫寶鑑』에는 연달아 여러 차례 복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스스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투약법의 지시가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立便逐下. 此藥催生神妙, 佛手散.”

66) 柳凝我, 丁彰炫. 臨產 醫論과 醫方에 대한 문헌고찰-佛手散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178.

67) 柳凝我, 丁彰炫. 한의학 出生生理의 奇經八脈論 적용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3). pp.95-97.

68) 柳凝我, 白上龍, 丁彰炫. 臨產 離經脈에 대한 문헌적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1). pp.141-144.

69) 崔淑媛房 護產廳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藏書閣소장. 1693(肅宗19年)寫. “同日辰時書. 啓崔淑媛無事解婉之後. 醫女言內, 胞衣時未即下云. 此雖例候, 而芎歸湯加紅花桃仁冬葵子榆白皮各一錢, 滑石二錢. 今方煎入之意, 詮次云云. 同日書. 啓崔淑媛醫女言內, 即今胞衣無事順下云, 不勝喜幸之意, 詮次云云.”

70)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233-234. “又每臨產難生, 胞衣不下”

71)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產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72)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9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普濟本事方』⁷³⁾의 佛手散方에는 “환자의 입으로 흘려 넣고 사람이 5~7리 걸어 갈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흘려 넣기를 2~3회 지나지 않아서 곧 깨어난다.”라고 투약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普濟本事方』은 ‘佛手散’이라는 方名の 연원이 되는 방서이므로, 인사불성 시의 佛手散 투약법은 『普濟本事方』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東醫寶鑑』에 이어 『濟衆新編·婦人·妊娠通治』, 『醫方新監·下卷·妊娠』, 『醫本·婦人·妊娠通治』에 위에 제시한 『東醫寶鑑』의 原文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甦生”의 效能을 기재하였다. 『東醫寶鑑』보다 저술시기가 앞서는 『醫林撮要』에는 佛手散을 적용하는 人事不省 상황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설명이 보인다. 즉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이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산후에 血量⁷⁴⁾으로 정신을 잃는 양상이 風에 맞은 것 같거나, 혈이 붕괴되어 惡露가 그치지 않으면서 뱃속이 몹시 아프거나, 혈이 정체되어 부종이 된 것이 心經으로 들어가서 언어가 전도된 증이 마치 귀신을 본 것 같거나, 血과 風이 서로 부딪혀서 몸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는 것이 학질과 비슷하거나, 모든 胎前과 출산에 위급 낭패하여 죽음이 드리운 등의 증상을 아울러 모두 다스린다.”라고 하여 ‘血量’으로 人事不省이 된 증상이 中風과 같음’을 기술하였다.

又每臨產難生，胞衣不下，及產後血暈，不省人事，狀如中風，血崩惡露不止，腹中疝痛，血滯浮腫，入心經，言語顛倒，如見鬼神，血風相搏，身熱頭痛，或似瘧。一切胎前產，危急狼狽垂死等證，并皆治之。⁷⁵⁾

73)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口噤灌之. 如人行五七里, 再進, 不過二三服便生.”

74) 血量은 産後에 氣血이 갑자기 몹시 허하여 血이 氣를 좇아 心神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惡露가 거슬러 心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우며 가슴이悶亂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4. ‘血量’條)

75)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233-234.

이상 『東醫寶鑑』 등과 『醫林撮要』 佛手散 적용증의 人事不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극심한 血虛 혹은 惡血이 心神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식의 혼미나 단절을 초래하고, 이러한 기전의 의식혼미나 의식단절에 佛手散을 써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초래된 의식혼미나 의식단절을 “甦生”시킬 수 있는 佛手散의 效能을 심층 연구하고 투약법을 보다 편리하게 개발한다면 현대의 응급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 止痛

일곱째, 임신 중 胎動不安으로 복통이 있을 때 혈과 관련된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복통이 멎도록 하는 “止痛”의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에 “胎가 動하여 불안하여 복통이 있는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또 “胎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통증이 그치고 태아와 어머니가 모두 안정된다.”라고 하여 태아가 손상되지 않은 胎動不安 증에 佛手散을 써서 태가 안정되며 복통이 가심을 기술하였다.

治胎動不安腹痛.⁷⁶⁾

胎不損則痛止，子母俱安.⁷⁷⁾

뿐만 아니라 『鄉藥集成方·卷66·乳癰』⁷⁸⁾과 『袖珍經驗神方·産後諸症』에는 산후에 乳懸症이 발하여 유방이 가늘고 길게 늘어지면서 통증이 몹시 심한 데에 內服과 外治를 겸함으로써 통증을 멎게 하고 유

76)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0.

77)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9.

78)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607-608. “『得效方』 治婦人産後忽兩乳伸長, 細小如鳩, 垂下直過小肚, 痛不可忍, 危亡須臾(臾?), 名乳懸.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斤, 剉散, 於尾(?)石器內用水濃煎, 不拘時候, 多少溫服. 餘一斤半, 剉作大塊, 用香爐慢火, 旋燒烟出. 安在病人面前卓子下, 令烟氣直上, 不絕使病人低頭伏卓子上, 將口鼻及病乳常吸烟氣. 用此一料盡者, 病證如何, 或未全安略縮減, 再用一料如前法. 必安如用此二料已盡, 兩乳雖若縮上而不復舊, 用冷水磨草麻子一粒, 於頭頂心上塗, ()時卽洗去, 則全安矣.

방의 외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産後兩乳伸長，細小如腸，垂過小腹，痛不可忍，川芎，當歸 各四兩，砂器煎水時時服之。別用川芎 當歸 各一斤，切大塊於爐上，燉火燒烟，安病人面前，使烟氣不絕，令伏卓上，將口臭及兩乳常吹入烟氣，如藥盡未全，如前法煎服，燒薰亦然，兩乳雖縮上不復舊，用冷水磨卑麻子一立，塗頭頂心，俟乳縮，即洗去.⁷⁹⁾

여기서의止痛은 물론 신경전달 체계를 차단하거나 뇌의 통증 감지를 무디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전이 아니다. 佛手散을 써서 자궁과 태가 안정되어 복통이 유발되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자연히 통증이 멎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태동불안의 원인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여 當歸, 川芎 煎湯藥으로 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 “止痛” 效能이며, 모든 경우의 태동불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止痛 效能이 아니다. 産後 乳懸症에 동반한 유방 통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 상 통증은 보통 寒邪가 침입하여 經脈 또는 絡脈의 기혈순환을 정체함으로써 발생한다.⁸⁰⁾ 그러므로 佛手散이 자궁부위 및 유방부위의 經脈과 絡脈에 정체된 氣血을 溫養行滯함으로써 “止痛”의 效能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川芎의 活血, 行氣, 祛風하는 약성에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⁸¹⁾

아. 補血

여덟째, 産後에 血이 虛하여 발생하는 血量 등의 여러 가지 증상에 부족한 血을 보충함으로써 경감

또는 해소시키는 “補血”의 效能이 있다. 『春監錄·婦人門·産後諸症』에 “산후에 血量이 2가지가 있다. 下血을 많이 해서 血量이 된 경우는 補血함이 마땅하니, 芎歸湯이 적합하다.”라고 하여 佛手散에 “補血” 效能이 있어 산후 血量을 다스림을 기재하였다.

産後血量有二，下血多而暈者，當補血，宜芎歸湯.⁸²⁾

産後의 血虛뿐 아니라 일체의 失血이 지나쳐서 발생한 인사불성 증상을 甦生하게 하는 일차적 작용이 실은 “補血”의 效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체의 血이 극도로 허한 중에 佛手散으로 補血함으로써 心神이 자양되어 소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물을 써서 補血하는 것은 白芍藥이나 熟地黃을 쓸 증상에 비해 血滯 및 血瘀가 어느 정도 동반되었으며, 脾氣虛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⁸³⁾

2) 佛手散의 主治

앞에서 살펴본 佛手散의 “逐敗血, 生新血”, “縮胎易産”, “催産”, “驗胎, 下死胎”, “下胞衣”, “甦生”, “止痛”, “補血”의 效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질병 또는 증후는 크게 다음의 9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가. 胎動不安

첫째, 『鄉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胎動不安”으로 현대의 유산전조증에 해당된다. 태아사망 및 유산으로 발전되지 않은 경우이며, 총 5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鄉藥集成方·妊娠疾病門』에 “『救粹方』의 立效散이니, 부인의 태가 동하여 불안한 것이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처럼 차가운 것을 치료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婦人의 胎動不安을 다스림을 명시하였다.

79)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80) 갑자기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에 대하여 『素問·學痛論』에서는 寒氣가 脈外에 客하면 脈이 수축되고 이로써 小絡을 당김으로써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45. “寒氣客於脈外則脈寒, 脈寒則縮蹙, 縮蹙則脈絀急, 絀急則外引小絡, 故卒然而痛.”)

81) 康秉秀 外 10인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410.

82) 李永春 撰. 金信根 編. 春鑑錄.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01.

83) 川芎은 물론이고 當歸도 行血하는 작용이 있어 崩漏나 月經過多證이 純虛하고 瘀滯가 없는 자에게는 慎用하여야 한다.(康秉秀 外 10人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410.)

救瘵方立效散, 治婦人胎動不安, 如重物所墮, 冷如水.⁸⁴⁾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등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증으로 볼 수 있다.

나.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

둘째, 『鄉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로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경우이다. 총 14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鄉藥集成方·妊娠疾病門』에 “『產寶方』의 胎가 동하여 하혈하고 가슴과 복부가 쥐어짜듯 아픈 증을 낮게 하는 처방이니, 복중 태아의 사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탕약을 복용하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려오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안정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하혈하고 통증이 심하며 태아가 사망한 급박한 상황을 다스림을 기재하였다.

產寶方療胎動下血心腹絞痛. 兒在腹, 死活未分, 服此湯, 死則下, 活則安.⁸⁵⁾

“逐敗血, 生新血”, “驗胎, 下死胎”, “止痛” 등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증으로 볼 수 있다.

다. 保産(산전관리와 難産방지)

셋째, 『東醫寶鑑』 등에 보이는 “保産”으로 순산 촉진 및 難産방지를 위한 출산 예비약물로 쓰인 경우이다. 총 11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에 “임신한 부인이 해산달에 복용하면 胎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여 자연히 難産의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여 佛手散을 임신 예비약물로 활용하면 쉽게 출산하여 難産을 방지할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産, 自無難産之

84)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85)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1.

患.⁸⁶⁾

“縮胎易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겠다.

라. 催生(분만촉진)

넷째, 『鄉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催生”으로 분만진통이 도래한 후에 복용하여 정상적인 출산을 촉진하여 순조롭게 하며 분만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이다. 총 3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鄉藥集成方·催生』에 “『胎産救急方』의 佛手散이니, 출산 시에 장차 漿水가 과열되어 血이 내려오에 이른 증을 다스린다. 복부에 규칙적이고 잦은 진통이 발생하여 점차 腰痛이 극심한 데에 이르면 태아의 몸이 이미 회전하며 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항문이 빠져 나온다. 이것은 正産의 候이니 마땅히 이 약을 복용하여 출산을 촉진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분만을 촉진할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胎産救急方. 佛手散. 治産時將至漿破血下, 腹中作陣數疼痛, 漸至腰痛極甚, 兒身已轉, 眼如出火, 穀道挺迸, 此是正産之候. 宜服此以催之.⁸⁷⁾

“催生”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다.

마. 難産

다섯째, 『醫林撮要』 등에 보이는 “難産”으로 현대의 자궁수축부진, 분만지연 등에 해당된다. 총 9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醫林撮要·産後門』에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라고 하였으며, 『廣濟秘笈·婦人門』에 “또한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상을 다스린다.[경험]”라고 하여 佛手散이 難産을 다스릴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産難生⁸⁸⁾

86)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87)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88)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又治難產及胞衣不下. 經驗.⁸⁹⁾

難産을 언급한 총 9회의 기록에는 橫産, 逆産 등 태아역위로 인한 難産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에는 태아역위가 분만 시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왕절개술로 출산을 한다. 따라서 橫産, 逆産과 같은 佛手散의 主治가 현대에는 변경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태아역위를 그대로 두고 분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에 태아역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佛手散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諺解胎産集要』에는 “열 가지 출산이 어려운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濟衆新編婦人』에는 『東醫寶鑑』을 인용하여 “산전산후의 여러 질환을 다스린다. 血量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옆으로 나거나 거꾸로 나는 증”이라고 하여 佛手散이 태아역위의 難産을 다스림을 기록하였다.

芎歸湯通治十産艱難.⁹⁰⁾

〔寶鑑〕 治産前産後諸疾, 血量不省, 橫生逆産.⁹¹⁾

十産候를 언급한 것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태아역위를 主治로 한 것은 총 4회의 기록이 보인다. 현대의 출산에서 태아역위에 대하여 체조 등으로 자연정복을 꾀하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데, 佛手散의 橫逆産에 대한 主治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태아역위에 대한 처방으로 개발한다면 자연분만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궁수축부진과 분만 지연은 “催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태아역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縮胎易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태반분리 배출촉진

여섯째, 『醫林撮要』 등에 보이는 “태반분리 배출촉진”으로 분만 후 태반이 제때에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 3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醫林撮要·産後門』에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이 내려오지 않거나”라고 하였으며, 『廣濟秘笈·婦人門』에 “또한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壽生新鑑·産房隨錄』에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데에 佛手散을 쓴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분만 후 태반이 분리되어 배출되지 않는 증을 다스림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産難生, 胞衣不下.⁹²⁾

又治難産及胞衣不下. 經驗.⁹³⁾

難産, 及布衣不下, 用佛手散.⁹⁴⁾

“下胞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겠다. 佛手散의 效能 서술에서 신생아의 분만을 촉진하는 것과 태반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것을 구분하여 각각 “催産”과 “下胞衣”로 정의하였기에 主治에 있어서도 “분만촉진”과 “태반분리 배출촉진”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태반분리 배출촉진의 경우 특히 淑嬪崔氏의 출산을 기록한 『護産廳日記』에 佛手散을 적용한 치험례가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⁹⁵⁾

사.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일곱째, 『醫鑑刪定要訣』 등에 보이는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에 쓰인 경우이다. 출산 후에 惡露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거나 그에 동반하는 복통, 두통 및 현훈, 천식 등 산후 여러 가지

驪江出版社. 1988. p.233.

89)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26.

90)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05.

91) 康命吉 撰. 金信根 編. 濟衆新編. 韓國醫學大系1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04.

92)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

93)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26.

94)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95) 崔淑媛房 護産廳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藏書閣소장. 1693(肅宗19年)寫. “同日辰時書. 啓崔淑媛無事解娩之後, 醫女言內, 胞衣時未即下云. 此雖例候, 而芎歸湯, 加紅花桃仁冬葵子榆白皮各一錢, 滑石二錢. 今方煎入之意, 詮次云云. 同日書. 啓崔淑媛醫女言內, 即今胞衣無事順下云, 不勝喜幸之意, 詮次云云.”

증상에 해당된다. 총 14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에는 “산후에 복용하면 곳은 피가 저절로 내려온다.”라고 하였으며, 『醫鑑刪定要訣·婦人』에는 “산후에 하혈이 많아서 血量이 되어 정신이 흐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번거롭고 어지러운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診解胎產集要·喘息』에는 “산후에 喘滿하고 氣急한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산후 惡露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증과 血量으로 인한 여러 증상 및 産後喘急 등 諸證을 치료함을 기록하였다.

治産後下血多而暈者，昏悶煩亂。⁹⁶⁾

産後服之，則惡血自下。⁹⁷⁾

芎歸湯，治産後喘急。方見通治。⁹⁸⁾

산후 惡露배출 및 血量 등 諸症에 대한 것은 佛手散의 “逐敗血，生新血”과 “止痛” 및 “補血” 효능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여덟째, 『袖珍經驗神方』 등에 보이는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회복”에 쓰인 경우이다. 『鄉藥集成方』과 『袖珍經驗神方』에 총 2회에 걸쳐 기록이 보인다. 바로 위의 “산후 惡露배출, 현훈, 천식, 두통, 복통”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약의 작용 부위가 유방으로 특수하게 명시되며 內服과 熏연의 外治法을 동시에 시행하는 점 때문에 主治를 별도로 분리하였다. 『袖珍經驗神方·産後諸症』에 “산후 양쪽 유방이 늘어나고 길어져서 가늘기가 창자와 같아지고 아랫배를 지나도록 드리워지며, 통증을 참을 수 없는 증상에 川芎, 當歸 각4냥을 사기그릇에 물로 달여 때때로 복용한다. 별도로 川芎과 當歸 각1근을 큰 덩이로 잘라서 화로 위에 두고 숯불에 태워 연기를 낸다. 병인의 면전 탁자 밑에 두고 연기가 끊이지 않게 하

되, 탁자 위로 올라가게 하여 (병인의) 입과 코 및 양쪽 유방에 연기가 스며들게 한다. 약이 다 없어지도록 낮지 않으면 앞의 법과 같이 달여서 복용하고 연기를 쬐는 것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을 내복하는 동시에 熏연으로 환부에 쬐어 산후에 유방이 늘어지고 몹시 아픈 증상을 치료함을 기록하였다.

産後兩乳伸長，細小如腸，垂過小腹，痛不可忍，川芎當歸 各四兩，砂器煎水時時服之。別用川芎 當歸 各一斤，切大塊於爐上，燉火燒烟，安病人面前，使烟氣不絕，令伏卓上，將口臭及兩乳常吹入烟氣，如藥盡未全，如前法煎服，燒薰亦然，兩乳雖縮上不復舊，用冷水磨卑麻子一立，塗頭頂心，俟乳縮，即洗去。⁹⁹⁾

佛手散을 외치법으로 적용함으로써 유방 뿐 아니라 출산으로 형태가 흐트러진 여러 신체조직의 탄력 회복 및 형태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회복”의 主治에는 佛手散의 “逐敗血，生新血”과 “止痛” 및 “補血”의 효능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

아홉째, 『醫林撮要』 등에 보이는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에 쓰인 경우이다. 총 5회에 걸쳐 기록이 보인다. 『醫林撮要·産後門』에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이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산후에 血量으로 정신을 잃는 양상이 風에 맞은 것 같거나, 혈이 붕괴되어 오로가 그치지 않으면서 뱃속이 몹시 아프거나, 혈이 정체되어 부종이 된 것이 心經으로 들어가서 언어가 전도된 증이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거나, 血과 風이 서로 부딪혀서 몸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

96) 李以斗 撰, 金信根 編. 醫鑑刪定要訣. 韓國醫學大系2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0.

97)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9.

98) 許浚 撰, 金信根 編. 診解胎產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58.

99)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는 것이 학질과 비슷하거나, 모든 胎前과 출산에 위급 낭패하여 죽음이 드리운 등의 증상을 아울러 모두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東醫寶鑑·雜病篇·婦人』에 “유산으로 혈을 많이 잃었거나, 산후에 혈을 많이 잃었거나, 혈이 무너져 내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쇠에 찢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치아를 뽑고 혈을 많이 잃었거나 일체의 출혈이 과다하여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돌며 (가슴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수차례 연달아 복용하면 곧 소생한다. [득효].”라고 하여 佛手散이 실혈과다 또는 혈과 관련된 어지러움과 의식불명 및 의식단절의 구급증상을 치료함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產難生，胞衣不下，及產後血暈¹⁰⁰⁾，不省人事，狀如中風，血崩惡露不止，腹中痲痛，血滯浮腫，入心經，言語顛倒，如見鬼神，血風相搏，身熱頭痛，或似瘧。一切胎前產，危急狼狽垂死等證，并皆治之。¹⁰¹⁾

又治半產去血多，產後去血多，崩中去血多，金瘡去血多，拔牙齒去血多，及一切去血過多，眩暈悶絕，不省人事者，連進數服，卽甦。得效。¹⁰²⁾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에는 佛手散의 “補血” 및 “甦生”의 效能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불성 등 구급증은 특히 응급실에서 輸血이 필요한 구급상황과 유사하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혈액을 수집, 보관, 공급하는 데에 절차가 간단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함에, 수혈용 혈액을 보충 혹은 대체할 수 있는 佛手散 제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口噤 환

자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흘려 넣던 복용방법도 제제의 개발과 더불어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변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 한국醫書에 기록된 佛手散의 主治를 고찰하여 9가지로 귀납한 결과를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다.

Table 7.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主治)

佛手散의 主治	대표 醫書	기록 건수	관련 效能
胎動不安	鄉藥集成方	5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 (태아사망)	鄉藥集成方	14	逐敗血, 生新血/ 驗胎, 下死胎/ 止痛
保産(산전관리와 難産방지)	東醫寶鑑	11	縮胎易産
催生(분만촉진)	鄉藥集成方	3	催産
難産	醫林撮要	9	催産, 縮胎易産
태반분리 배출촉진	醫林撮要	3	下胞衣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醫鑑刪定要訣	14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袖珍經驗新方	2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	醫林撮要	5	補血/ 甦生

III. 考 察

현대 약리학의 입장에서 當歸는 미나리과 식물인 *Angelica gigas Nakai*의 근을 건조시킨 것으로 정유와 수용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수용성 성분은 주로 ferulic acid(0.094%)로 혈소판의 5-HT 분비를 억제하는 등의 작용이 있으며, 혈전의 乾중량을 감소시키고 완만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當歸는 빈혈에서 RBC 수와 hemoglobin 양을 증가시키고 백혈

100) 血暈은 産後에 氣血이 갑자기 몹시 허하여 血이 氣를 좇아 心神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惡露가 거슬러 心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悶亂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4. ‘血暈’條)

101)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234.

102)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9

구 및 혈소판 감소를 회복시킨다. 망상적혈구와 골수 세포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작용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로 입과세포의 활성을 촉진 시킴으로써 조혈간세포와 CFU-GM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켜 補血작용을 나타낸다. 이밖에 심근에서 혈액공급을 증강시키고, 심근허혈을 완화시키며 심근세포에서 박동을 완만하게 하고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킨다. 當歸의 정유성분인 liquistilide와 N-butylidenephthalide는 TXA₂에 의한 혈관수축에 길항한다. 當歸는 또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저항력을 감소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choline 수용체와 histamin 수용체의 흥분에 기인한다. 또한 자궁 평활근에 작용하여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한다. 자궁 평활근을 흥분하는 성분은 수용성 알콜 또는 알콜용해성 비휘발성 물질과 정유이며, 억제 성분은 주로 정유와 ferulic acid이다. 이에 따라 當歸는 자궁의 상태에 따른 이중적인 조절작용을 하여 通經, 催產(oxytocic), 崩漏에 대한 약리학적인 근거가 된다. 기타 기관지 평활근에 대하여도 이완 및 解痙작용이 있다. 이러한 약리학적 效能을 바탕으로 급성 허혈성 뇌중풍, 혈전폐쇄성 맥관염,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병에 當歸 주사액을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 통증 및 월경불순 등에는 煎劑 및 錠劑를 사용하며, 기관지 효전과 기관지염에 當歸 에탄올추출물을 구복하면 증세가 완화된다.¹⁰³⁾

川芎은 미나리과 식물인 *Cnidium officinale Makino*의 根莖을 말린 것으로 주성분은 ligustrazine과 ferulic acid이다. ligustrazine은 심혈관계에 대한 활성이 강하여 동맥과 관상동맥에서 저항력을 저하시키며, 급성 심근경색에서 병변의 정도를 경감시키고 경색범위를 축소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한 뇌혈류 장애가 있을 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소순환을 개선시키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ferulic acid 역시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심근허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川芎은 또한 혈전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혈전의 乾중

량과 濕중량을 감소시키는데, 川芎의 이러한 작용은 다른 항혈전 작용이 있는 한약인 川芎, 홍화, 단삼, 적작약, 강향 등과 배조합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이들 5종 한약을 배합한 처방의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작용이 川芎 단미보다 더 강하다. ligustrazine은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응집된 혈소판을 해소시키며, Sod. ferulic acid 역시 혈전형성을 뚜렷하게 억제하여 川芎의 항혈전 및 혈액응고 억제작용에 대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한편 川芎의 수추출물과 알콜추출물은 소장과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고 경련을 이완 및 해결시킨다. 川芎의 이러한 작용은 調經止痛 효과의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약리학적 效能을 바탕으로 川芎 alkaloid를 정맥 또는 근육주사하여 관상동맥 심질환을 치료했을 때 환자의 절반에서 협심증 증상이 24시간 내 경감되거나 소실되고, 일부 환자에서는 심전도가 호전되었다. 또한 ligustrazine를 허혈성 뇌혈관의 급성기에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2~5일 후에 偏癱肢體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고, 발병 4일 이내 초기의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가 비교적 좋다.¹⁰⁴⁾

이상 當歸와 川芎에 대한 현대 약리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모두 관상동맥과 심혈관계, 뇌혈관,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액응고 지연 및 억제, 혈전 감소 등으로 혈류를 개선시키고 평활근의 이완 및 수축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當歸는 특히 RBC, hemoglobin, 백혈구, 혈소판, 망상적혈구, 골수 세포 등에 두루 작용하여 새로운 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며, 川芎은 혈전을 처리하는 작용이 탁월하다. 이는 한의학에서 當歸와 川芎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인 “補血”과 “破瘀血”을 약리학적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醫書 내 佛手散의 效能 인식인 “逐敗血, 生新血”과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當歸와 川芎의 관상동맥과 심근 및 뇌혈관에 대한 작용은 血虛 및 惡血로 인한 의식혼미와 의식단절에 대한 “甦生” 效能에 대한 충분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특히 川芎의

103) 한중현, 김기영.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2009. pp.479-483.

104) 한중현, 김기영.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2009. pp.364-367.

주요 구성성분인 ligustrazine의 허혈성 뇌혈관과 그로 인한 偏癱肢體의 운동 개선 효과는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유발된 口噤,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에 대한 佛手散의 效能이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편 當歸와 川芎의 자궁 평활근에 대한 수축흥분 또는 수축억제 작용은 佛手散의 “縮胎易產”, “催產”, “驗胎, 下死胎”, “下胞衣” 效能에 대하여 약리학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특히 當歸가 자궁 상태에 따라 자궁근의 수축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약리학적 작용은 佛手散이 태동불안 또는 유산의 상황에서 태아의 존망 여부에 따라 태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사망한 태아를 배출시키기도 하여 적절히 알아서 조절하는 效能을 발휘하는 것이 약리학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陳春玲 등은 임신 12주~27주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중절을 원하는 32례 시험군에 대하여 요추천자로 양막강에 외용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의 유도분만 시술을 하면서 시술 당일부터 시술 3일째까지 佛手散(當歸·川芎 3:2 비율)을 하루 2회, 1회 150ml씩 복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佛手散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자궁수축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태아 만출까지의 시간, 출산시의 출혈량, 태아 만출 후 24시간 동안의 출혈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시술 후 태반잔류가 시험군은 6례, 대조군은 15례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¹⁰⁵⁾ 이것은 “催產” 및 “下死胎”, “下胞衣”의 佛手散 效能을 직접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연구인데, 佛手散의 분만작용에 대한 效能뿐만 아니라 佛手散의 效能을 오늘날의 임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佛手散의 분만에 대한 작용은 현대 의학적으로 크게 2가지 기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궁의 평활근에 대한 작용과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시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이 그것이다. 사실 이 2가지의 기전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호르몬 분비에 따라 자궁근이

수축하거나 이완되는 것이지만, 佛手散의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자궁근의 수축 및 이완에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가정할 것이다. 자궁 평활근에 대한 작용은 當歸, 川芎 각각의 약리학적 분석과 임상 검증 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陳芊 등의 실험에 의하면 佛手散(當歸·川芎 1:1 비율)을 저량으로 투여했을 때 임신한 쥐의 혈액점도를 개선하고 임신상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적정 복용량 이상으로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혈청 및 국부조직의 종양괴사인자 α (TNF- α) 증가와 함께 정상임신상태에 있던 쥐의 자연유산율을 초래하였다.¹⁰⁶⁾ 陳芊 등의 실험에서는 佛手散의 破瘀血 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지표로 설정하지 않고 종양괴사인자 α 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쥐의 자연유산이 초래되는 데에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 분비와 그로 인한 자궁수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佛手散의 임신 및 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유지 혹은 분만이나 태반배출을 목적으로 할 때 佛手散의 적정 임상투여량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佛手散의 투여량에 따라 혈액점도 및 혈류를 개선시켜 임신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체내 면역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 자연유산율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陳芊 등의 다른 시험 연구에서는 태동불안 상태를 유발한 쥐에게 적정량의 佛手散(當歸·川芎 1:1 비율)을 투여하여 혈청 및 자궁과 태반조직 중의 종양괴사인자 α (TNF- α)를 감소시켜 오히려 유산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임신 중 佛手散 투여는 그 목적에 따라 투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⁰⁷⁾

한편 魯建武 등의 연구에서는 瘀血상태를 유발한 쥐에게 동일한 분량의 佛手散(當歸·川芎 1:1 비율), 當歸, 川芎을 각각 투여하여 전체 혈액의 점도, 적

105) 陳春玲, 陳錦玉.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妊娠引產效果分析. 實用中醫藥雜誌. 2014. 30(6). p.512.

106) 陳芊, 孫云松, 張斌. 中藥佛手散對孕鼠胎兒結局的影響及機理研究. 中國計劃生育學雜誌. 2009. 12(總171). pp.722-724.

107) 陳芊 外 4人. 佛手散對先兆流產模型大鼠 TNF- α 影響的實驗研究.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9. 14(9). pp.618-620.

혈구 응집, 적혈구 용적, 혈소판 응집, 혈소판 점착 및 적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hemoglobin) 수 등을 관찰한 결과 3가지 모두 活血化瘀 및 補血養血 작용으로 혈액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佛手散을 투여한 경우가 當歸나 川芎 單味를 투여한 경우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¹⁰⁸⁾ 또한 黃美艷 등의 실험 연구에서는 佛手散(當歸·川芎 3:2 비율)의 추출 농도를 40%로 했을 때 補血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40%, 30%, 20%, 50%, 15%, 70%, 10%, 5%, 95%, 0%의 순으로 補血효과가 차츰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¹⁰⁹⁾

한편, 현대의 입상에 佛手散을 적용하고자 할 때 중국 清代 溫病醫家인 吳鞠通의 當歸와 川芎에 대한 논평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吳鞠通은 『溫病條辨·解產難』에서 當歸와 川芎은 산후에 상용하는 주요 약물이지만 血寒으로 血脈이 응체된 경우에 쓰는 것이 마땅하고, 血虛로 인한 虛熱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 어렵다고 논하였다.¹¹⁰⁾ 현대의 佛手散 실험연구에서 귀에게 瘀血을 유발할 때에도 대체로 찬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血熱이나 血燥로 생긴 瘀血증상 및 기타 임신과 출산 시의 상황들에 佛手散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當歸와 川芎의 溫血하는 약성이 병자의 辨證결과와 배치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血熱 및 溫熱로 인한 血燥證일 경우 佛手散의 적용을 신중히 하고, 血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타 약물을 配伍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IV. 結 論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20종의 의서 즉 『鄉藥救急方』, 『診解救急方』,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東醫寶鑑』, 『廣濟秘笈』, 『濟衆新編』, 『醫鑑刪定要訣

』, 『本草附方便覽』, 『醫宗損益』, 『春監錄』, 『袖珍經驗神方』, 『醫方新鑑』, 『醫本』, 『經驗方』, 『胎產要錄』, 『診解胎產集要』, 『壽生新鑑·產房隨錄』, 『增補山林經濟·救急篇』, 『仁濟志』에서 총 46건의 佛手散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佛手散은 當歸와 川芎 2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인데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이 3:2인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1:1인 경우가 14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2:1인 경우와 1:2인 경우가 각각 1건 있었다. 특히 1:1인 경우 처방명을 ‘芎歸湯’으로 한 경향성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修治法으로는 當歸와 川芎을 粉末한 경우가 8건 있었고, 當歸酒洗·川芎炒去油가 1건, 川芎去油가 1건 있었다. 煎湯法으로는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19건, 물로만 전탕한 경우가 13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는 먼저 물로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더 넣고 달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鄉藥集成方』과 『袖珍經驗神方』에는 산후 乳懸症에 內服과 함께 當歸, 川芎을 태워 나는 연기를 환자의 환부와 口鼻에 燻蒸하는 外治製藥法이 기재되어 있다. 當歸와 川芎 외에 가하면 좋다고 한 약제로는 益母草가 13건, 荊芥穗와 肉桂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異名은 ‘芎歸湯’으로 18건이 있었다. 이 중 9건에서 當歸와 川芎 분량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그 외 ‘立效散’이 3건, ‘烏金散’, ‘神妙佛手散’, ‘的奇散’이 각각 1건 있었다.

한국의서에 기재된 佛手散의 효능은 “逐敗血, 生新血”, “縮胎易產”, “催產”, “驗胎, 下死胎”, “下胞衣”, “甦生”, “止痛”, “補血”의 8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逐敗血, 生新血”은 다른 모든 효능의 기반이 되는 효능으로 當歸, 川芎 2가지 약제 각각의 補血作用과 破瘀作用에 착안한 『鄉藥集成方·坐月門』의 독창적인 서술이다. “縮胎易產”의 효능 역시 『東醫寶鑑』에 처음 보이는 창의적인 서술로 『濟生方』에서 연원한 ‘瘦胎易產’의 臨產醫論을 계승하여 氣藥을 血藥으로 바꾸고 “瘦胎”를 “縮胎”로 고쳤는데, 임상에서의 활용과 성과의 획득이라는 현실적 검증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催產”은 출산이라는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즉각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본

108) 魯建武, 宋金春, 曾俊芬.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 中國醫院藥學雜誌. 2009. 29(5). pp.356-358.

109) 黃美艷 外 6人. 採用代謝組學策略研究佛手散對急性血瘀大鼠的活血化瘀作用機制. 中國中藥雜誌. 2013. 38(20). pp.3576-3582.

110)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04. p.465.

래 구급처방이던 佛手散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효능이며, “驗胎, 下死胎”는 佛手散 처방의 주요 목적이자 이후 점차 확장된 佛手散 효능의 가장 효시가 되는 효능이다. “甦生”은 극심한 血虛 혹은 惡血이 심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식의 혼미나 단절을 초래한 경우에 급히 血을 보충하거나 血을 고르게 함으로써 깨어나게 하는 효능으로, 심층연구 및 투약법 개선 등을 통해 현대의 응급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효능을 바탕으로 佛手散을 적용할 수 있는 主治를 “胎動不安(유산전조증)”,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태아사망)”, “保産(산전관리와 難産 방지)”, “催生(분만촉진)”, “難産”, “대반분리 배출촉진”,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의 9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한국의서 중 佛手散의 主治와 관련한 기록은 각각 순서대로 5건, 14건, 11건, 3건, 9건, 3건, 14건, 2건, 5건 찾아볼 수 있었다.

현대 약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當歸, 川芎은 모두 관상동맥과 심혈관계, 뇌혈관,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액응고 지연 및 억제, 혈전감소 등으로 혈류를 개선시키고 평활근의 이완 및 수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當歸와 川芎의 자궁 평활근에 대한 수축흥분 또는 수축억제 작용은 佛手散의 “縮胎易産”, “催生”, “驗胎, 下死胎”, “下胞衣” 효능에 대하여 약리학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또한 當歸와 川芎의 관상동맥과 심근 및 뇌혈관에 대한 작용은 血虛 및 惡血로 인한 의식혼미와 의식단절에 대한 佛手散의 “甦生” 효능에 대해 충분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특히 川芎의 주요 구성성분인 ligustrazine의 허혈성 뇌혈관과 그로 인한 偏癱肢體의 운동 개선 효과는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유발된 口噤, 人事不省, 動風 등 救急症에 대한 佛手散의 효능이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佛手散의 “催生” 및 “下死胎”, “下胞衣” 효능은 현대의 임상연구로 검증되고 있으며, 임신 중 “胎動不安” 상태를 정상으로 개선시키는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등 효능에 대하여도 현대의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임신 중 적정량 이상으로 佛手散을 투여할 경우 오히려 정상임신 상태에 있던 쥐가 자연유산 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임신 중 佛手散의 투여는 그 목적에 따라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清代 溫病學者인 吳鞠通의 지적처럼 血熱로 인한 瘀血證인 경우 當歸와 川芎이 대체로 溫血하여 補血 및 破血하는 작용을 함에 유의하여, 佛手散의 적용을 신중히 하거나 보완조치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感謝의 말씀

본 연구는 2012년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KHU-20131355)

References

1. Sun SM original work. Li JR, Su L, Jiao ZL proofread. Sunzhenrengqianjinf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6.
唐 孫思邈 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2. Xu SW. Pujibenshifang.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7.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3. Unknown author. Kim SG ed.. Hyangykgugeupbang. Series Of Korean Medicine 1.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4. You HT, No JR, Bak YD original work. Kim SG ed.. Hyangyjakjipseongbang. Series Of Korean Medicine 6.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5. Heo J original work. Kim SG ed.. Dongeuibogam. Series Of Korean Medicine

14.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許浚 編著,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 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6. Hwang DY original work. Kim SG ed., Bonchobubangpyenram. Series Of Korean Medicine 24.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黃度淵 撰, 金信根 編, 本草附方便覽, 韓國醫學大系2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7. Heo J trans., Kim SG ed., Unhaegugeupbang. Series Of Korean Medicine 1.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許浚 改撰診解, 金信根 編,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8. Yi GH original work. Kim SG ed., Gwangjebigeup. Series Of Korean Medicine 16.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 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9. Han BY original work. Kim SG ed., Euibangsingam. Series Of Korean Medicine 29.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韓秉璉 撰, 金信根 編,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 29.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0. Lyu JY original work. Kim SG ed., Zengbosanrimgyungje-gugeuppyun. Series Of Korean Medicine 44.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柳重臨 編, 金信根 編, 增補山林經濟 救急篇, 韓國醫學大系4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1. You HT, No JR, Bak YD original work. Kim SG ed., Gugeupyihabang. Series Of Korean Medicine 1.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救急易解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2. Yi RJ original work. Kim SG ed., Sujingyunghumsinbang. Series Of Korean Medicine 28.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3. Heo J original work. Kim SG ed., Unhaetaesanjipyo. Series Of Korean Medicine 33.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許浚 撰, 金信根 編, 診解胎產集要,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4. Unknown author. Kim SG ed., Susaengsingam-sanbangsurok. Series Of Korean Medicine 33.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產房隨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5. Yi YC original work. Kim SG ed., Choongamrok. Series Of Korean Medicine 27.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李永春 撰, 金信根 編, 春鑑錄,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6. No JR original work. Kim SG ed., Taesanyorok. Series Of Korean Medicine 33.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盧重禮 撰, 金信根 編, 胎產要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7. Yi YD original work. Kim SG ed., Euigamsanjeongyogyeeol. Series Of Korean Medicine 21. Seoul. Ryeongang Publisher. 1988.
李以斗 撰, 金信根 編, 醫鑑刪定要訣, 韓國醫學大系2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8. Gong TX original work. Jin JP ed. and trans., Paralled translation text of Wanbinghuichun. Seoul. Beobin publisher. 2007.
龔廷賢 撰, 陳柱杓 編譯, 對譯 萬病回春, 서울. 법인문화사. 2007.
19.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 and annot., New paralled translation and compiled

- annotation text of Yixuerumen. Seoul. Beobin publisher. 200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20. Zhang CZ original work. Jin JP trans. and annot.. Laboratory of medical classics ed.. Rumenshiqin. Collection of Four Outstanding Doctors in Jin and Yuan Dynasty 1st Vol. Written by Zhang CZ. Seoul. Beobin publisher. 2007.
金 張從政 撰.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儒門事親.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21. Zhu ZH original work. Jin JP trans. and annot.. Laboratory of medical classics ed.. Danxixinfu. Collection of Four Outstanding Doctors in Jin and Yuan Dynasty 2nd Vol. Seoul. Beobin publisher. 2007.
元 朱震亨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丹溪心法.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법인문화사. 2007.
22. Yan YH. Daesung publisher photoprint. Jishengfang. Siku Quanshu-Masters5-Medical Doctors 11. Seoul. Daesung publisher. 1995.
宋 嚴用和 撰. 大星文化社 影印.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3. Zan Y original work. Niu BZ ed.. Jingxiaochanbao. China Collection of Gynecology Classics. Beijing. Huaxia Publishing House. 1998.
唐 昝殷 著. 牛兵占 主編. 經效產寶. 中醫婦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24.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25. Gang BS, et al.. ed.. The Herbal. Seoul. Younglim publisher. 1991.
康秉秀 外 10人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26. Gang MG original work. Kim SG ed.. Jejungsinyeon. Series Of Korean Medicine 21. Seoul. Ryeogang Publisher. 1988.
康命吉 撰. 金信根 編. 濟衆新編. 韓國醫學大系 1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27. Han JH, Kim GY. Pharmacology of Korean Medicine. Seoul. Euisungdang Publisher. 2009.
한종현, 김기영.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2009.
28. Wu T original work. Jeong CH trans.. Translated in Korean Text of Wenbingtiaobian. Seoul. Jipmoondang Publisher. 200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04.
29. Lyu JA, Jeong CH. A Literature Review about Labor theory and practice - Focused on Bullsusan(佛手散) -.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2. 25(1).
柳姪我, 丁彰炫. 臨產 醫論과 醫方에 대한 문헌 고찰-佛手散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30. Cheon MR. The Effect of Bullsusan on Pregnant and Myometrium. Master's thesis of Kyunghee graduate school. 1985.
천미란. 佛手散이 妊娠 및 子宮筋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31. Kim CA. Study on the Erythropoietic Effects of the Koong Gui Tang Decoction and the Bullsusan Decoction on the Anemic Rabbit. Master's thesis of Wonkwang graduate school. 1981.
김춘애. 芎歸湯 및 佛手散煎液이 貧血家兔의 造血效果에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2. You SG. The Effect of Bullsusan on Retraction Force and Voluntary Exercise of Cervix in Rats. Master's thesis of Wonkwang graduate school. 1981.
유심근. 佛手散이 백서 자궁경수축력 및 자발운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3. Bai H, et al.. Association Analysis of Foshousan between Traditional Use and Modern Research. Chinese Traditional Patent Medicine. 2014. 36(3).
白鶴 外 3人. 佛手散의傳統功用與現代研究關聯分析. 中成藥. 2014. 36(3).
34. Huang MY, et al.. Comparative study on enriching Blood effect of Fo-Shou-san with different ethanol extraction. Chin J clin Pharmacol Ther. 2011. 16(8).
黃美艷 外 7人. 佛手散不同醇提液補血作用比較研究. 中國臨床藥理學與治療學. 2011. 16(8).
35. Huang MY, et al.. Evaluate activating blood circulation and dissipating blood stasis effect mechanism of Foshousan on acute blood stasis rats on basis of metabolomic approach. China J of Chinese Materia Medica. 2013. 38(20).
黃美艷 外 6人. 採用代謝組學策略研究佛手散對急性血瘀大鼠的活血化瘀作用機制. 中國中藥雜誌. 2013. 38(20).
36. Lu JW, Song JC, Zeng JF. Effect of Foshousan on the hemorheology in rat. Chin Hosp Pharm J. 2009. 29(5).
魯建武, 宋金春, 曾俊芬.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 中國醫院藥學雜誌. 2009. 29(5).
37. Chen CL, Chen JY. Analysis of the Effect of Combined Application of Foshousan and Injection Ethacridine Lactate into the Amniotic Cavity During Mid Trimester Induced Labor. J of Practic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 30(6).
陳春玲, 陳錦玉.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妊娠引產效果分析. 實用中醫藥雜誌. 2014. 30(6).
38. Chen Q, et al.. Experin ental Research of Foshousan of the Impact on Tumor Necrosis Factor- α in threatened abortion Model Rats. World Journal of Integrated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2009. 14(9).
陳芊 外 4人. 佛手散對先兆流產模型大鼠 TNT- α 影響的實驗研究.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9. 14(9).
39. Chen Q, Sun YS, Zhang B. The Effect of Foshou Powder on the Pregnancy Outcome of Normal Pregnant Rat. Chinese J of Family Planning. 2009. 2009. 12.(Total 171).
陳芊, 孫云松, 張斌. 中藥佛手散對孕鼠妊娠結局的影響及機理研究. 中國計劃生育學雜誌. 2009. 12.(總171).
40. Lyu JA, Jeong CH.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ight Extra Meridians Theory to Labor Physiology of Korean Medicine.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3).
柳姪我, 丁彰炫. 한의학 出産生理의 奇經八脈論 적용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3)
41. Lyu JA, Baik SR, Jeong CH. Literature Research on the Approaching Labor Pulse.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5(1).
柳姪我, 白上龍, 丁彰炫. 臨産 離經脈에 대한 문헌적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1).
42. Hosancheong of Joseon Dynasty. Daily Record of Hosancheong. 1693-1698(transcrib ed)
朝鮮 護産廳 編著. 護産廳日記. 1693-1698(肅宗 19-24)寫.
43. The Dong-A Ilbo. Article(gossip). 1966.1.10.
동아일보. 기사(가십). 1966.1.10.
44. The Kyunghyang Shinmun. Article(gossip). 1973.8.7.
경향신문. 기사(가십). 1973.8.7.